PART I

한국어 문법 교수법

김 정 숙 [고려대학교]

제1장 한국어 교육의 목표

제2장 한국어 교육의 내용

제3장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원리

제1장 한국어 교육의 목표

1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로 유창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창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둘째, 한국어를 이용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셋째, 한국어로 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넷째,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여,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다.
다섯째,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해 친교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POINT

■ 5Cs

미국에서는 외국어 학습의 기준(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1996)의 주요 목표를 아래와 같이 5Cs로 설정하였다.

- Communication(의사소통):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 Cultures(문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Connections(연계): 다른 분야와 연계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Comparisons(비교): 언어와 문화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도록 한다.
- Communities(공동체): 국내외에서 다언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교육인적자원부(1995)가 밝힌 '재외동포 교육의 목표 및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세계 속에서 자긍심 높은 한국인상 구현		
:		
안정적인 현지 정착과 민족적 정체성 유자신장		
:	:	:
모국 이해교육	현지 적응 교육	국내 연계 교육
영주동포 및 자녀들의 한국인으로서의 동질성 정체성 유자신장	현지 적응력 신장 및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흥	체류민 자녀들의 귀국 후 학교 및 사회적응 능력 제고
영주동포		일시 체류인

그리고 2005년 4월에는 '재외동포 교육 확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그 목표를 '국가의 소중한 해외 인적자원 개발 활용'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들 목표는 재외동포의 입장에서보다는 대한민국 정부나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본 교육 목표로,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재외동포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재정립될 수 있다.

재외동포 교육의 목표

자신의 뿌리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한국어 능력을 자산으로 자기 발전을 이루어, 훌륭 현지인, 세계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에 근거해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이나 한국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둘째, 한국어를 이용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셋째, 한국어로 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넷째,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 문화에 대해 긍정적 태

도를 갖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한다.

다섯째,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자산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다.

POINT

■ **한국어와 한글**

한국어: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말로, 세계에 존재하는 약 2,000여 종의 언어 중 하나이다. 언어는 어떤 언어가 우등하고 어떤 언어가 열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글: 한국어를 적는 문자 체계이다. 세계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한글은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시기, 창제 원리를 알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문자 체계이다. 한글의 창제 원리는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 전 세계 문자 중 가장 뛰어난 문자로 평가된다.

한글이 한국어를 적는 문자 체계를 의미하므로, '한글학교' 라는 명칭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의 이름으로 적합하지 않다.

제2장 한국어 교육의 내용

1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한국어 교육의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에 있는 만큼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이다.

2 어휘, 문법, 발음

좋은 재료 없이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어휘나 문법, 발음과 같은 한국어 지식에 대한 이해나 훈련이 없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없다.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어휘 지식도 중요하다. 또한 무리 없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을 구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어휘나 문법, 발음 등도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교육되어야 한다.

교수 Tip

한자 교육이 필요할까요?

한국어 어휘 중 60% 이상이 한자어이다. 그래서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같이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의 학습자는 한국어를 배울 때 약간의 이점이 있다.
한자가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조어력이 크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한국어 어휘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한자 교육을 강조하는 한국어 교사가 있다. 물론 한자를 알면 한국어 어휘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도 서툰 학습자에게 한자 학습을 하게 하는 것은 한국어 학습의 부담을 너무 크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한국에서 출판되는 책이나 잡지, 신문 중에 한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한자 학습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는 없다.
만일 한국어가 갖는 조어력을 강조하고 싶다면 한자를 교육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동일한 한자어가 들어 있는 어휘를 몇 개 이상 학생들이 알고 있을 경우, 그 어휘들을 제시한다. (예: 냉면, 냉장고, 냉커피)
②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보게 한 후 의미를 확인시킨다. (예: 위의 어휘들에서 '냉' 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차갑다' 는 뜻이지요.)
③ 그 한자가 들어 있는 새로운 어휘를 제시하고 무슨 뜻일지 추측해 보게 한다. (예: '냉방, 냉수' 는 무슨 뜻일까요?)
④ 앞으로 해당 한자어가 들어가 있는 새로운 어휘를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미를 추측해 보도록 한다.

3 담화 특성과 화행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말하거나 글을 쓰는 방식이 같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주제를 전달하고자 할 때 서양인들은 주로 말의 앞부분에 주제를 배치하는 반면, 동양인들은 주로 말의 뒤쪽에 주제를 배치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방식은 언어권이나 문화권에 따라 매우 다르다. 따라서 한국어로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행이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하는 언어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기능 뒤에 화행이라는 말을 붙여 '인사 화행, 사과 화행, 칭찬 화행, 감사 화행, 거절 화행' 등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화행도 언어권, 문화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화행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학습자들은 한국어 화행을 할 때 모국어 화행 습관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한국어 화행을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과 화행을 예로 들면, 한국인은 사과를 할 상황에서 '미안하다'나 '죄송하다'와 같은 사과의 말을 한 후 자신의 실수가 대수롭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을 덧붙이거나(가벼운 실수의 경우) 자신의 실수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중한 실수의 경우) 발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는 발화만을 수행한다.

예 1 **친구의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떨어뜨린 경우**

한국인: 미안해. (주워 주며) 그런데 안 깨졌네.
일본인: 미안해.

예 2 **친구들과 공동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자신이 맡은 부분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한국인: 정말 미안해. 내가 맡은 부분은 내일까지 해서 보내 줄게.
일본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칭찬에 대한 반응도 문화권에 따라 다름을 다음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정말 예뻐요. 옷도 아주 예쁘네요. 새로 샀나 봐요" 이 말을 들은 한국인과 미국인은 어떻게 반응할까? 칭찬에 대한 반응 화행 연구에 따르면 서양인은 칭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반면, 한국인은 칭찬 내용을 부정하거나 자기 비하와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많다고 한다. 즉, 문화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응 화행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 3 **미국인이 한국인을 칭찬했을 경우**

제인: 수미 씨, 오늘 정말 예뻐요. 옷도 아주 예쁘네요. 새로 샀나 봐요.
수미: 정말요? 이거 시장에서 이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예 4 **한국인이 미국인을 칭찬했을 경우**

수미: 제인 씨, 오늘 정말 예뻐요. 옷도 아주 예쁘네요. 새로 샀나 봐요.
제인: 정말요? 고마워요. 이 색 저에게 잘 어울리지요?

한국인과 같은 담화를 산출하고 의사소통 시 말하는 방식 때문에 장애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제1언어의 언어 습관을 버리고 한국어의 언어 습관을 익혀 표현하고 이해해야 한다. 학생들이 한국어의 언어 습관을 잘 익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된 좋은 글과 모범적인 말을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단순히 이들을 접하게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교사가 그 글이나 말의 전개 구조나 특징, 자주 사용되는 표현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교사는 한국어 담화와 학습자 언어의 담화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문화

언어를 배우는 것은 곧 문화를 배우는 것이다. 언어 학습과 문화 학습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목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언어만을 구사하는 것은 앵무새가 인간의 말을 흉내 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문화 교육은 언어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 놀부 같아'라거나 '심청이지'라는 답을 들었을 경우 '놀부'나 '심청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문장 구조가 간단한 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이처럼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의사소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는 반드시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 문화 중 어떤 것을 교육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문화 교육이라고 하면 전통 문화나 예술 문화를 교육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문화에는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요즘 문화'도 있고, 예술 문화뿐만 아니라 '생활 문화'도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일차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요즘 문화'와 '생활 문화'이다. '요즘 문화'와 '생활 문화'가 오늘의 한국과 한국인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요즘 문화'와 '생활 문화'에서 출

발한 문화 교육은 점차 전통 문화, 예술 문화, 문화적 지시어(속담, 관용어)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5 의사소통 전략과 비언어적 행위

의사소통 전략은 의사소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다. 즉, 남에게 부탁을 할 때 남이 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말을 하는 전략이나, 언어 능력 부족으로 말이 막혔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짓이나 풀어 말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 내는 전략을 말한다.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주로 소통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의사소통 전략에는 풀어서 설명하기, 대체어 사용하기, 신조어 사용하기, 코드 스위칭(code switching), 도움 청하기 등이 있다.

•• 교수 *Tip*

의사소통 전략의 예

① 풀어서 설명하기: 적절한 단어를 모를 때 그 단어를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
예) '도서관' 이라는 단어를 모를 때 '책을 읽는 곳, 혹은 책을 빌리는 곳' 이라고 말하는 것.

② 대체어 사용하기: 적절한 단어를 모를 때 뜻이 통할 만한 유사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
예) '찬 물' 이라고 해야 하나 '차다' 라는 말을 모를 때 '추운 물'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③ 신조어 사용하기: 적절한 단어를 모를 때 뜻이 통할 만한 말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
예) '변기 → 화장실 의자'

④ 코드 스위칭(code switching): 적절한 단어를 모를 때 모국어 어휘나 청자가 알고 있는 외국어 어휘를 사용하는 것.
예) '연역적' 이라는 단어를 모를 때 deductive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

⑤ 도움 청하기: 적절한 표현법을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 화자나 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예) (말할 때) 'deductive' 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들을 때) 좀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연역적' 이 무슨 뜻이에요?

위에서 말한 의사소통 전략 이외에도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습관을 점검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좋지 않은 의사소통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국어 학습에 매우 효율적이다. 다음은 자신의 말하기 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예 5 **의사소통 전략 점검 활동의 사례**

나는 어떤 말하기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좋지 않은 말하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 보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① 나는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말할지 생각한다. 5 – 4 – 3 – 2 – 1

② 나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5 – 4 – 3 – 2 – 1

③ 나는 듣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말하려고 노력한다. 5 – 4 – 3 – 2 – 1

④ 나는 말이 막힐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5 – 4 – 3 – 2 – 1

⑤ 나는 공식적인 자리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의 형식을 달리해 말한다. 5 – 4 – 3 – 2 – 1

⑥ 나는 정확히 알고 있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 말을 한다. 5 – 4 – 3 – 2 – 1

⑦ 나는 내용보다는 틀리지 않게 말하는 데 관심이 많고 노력을 한다. 5 – 4 – 3 – 2 – 1

⑧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은 후 말할 때 사용해 본다. 5 – 4 – 3 – 2 – 1

⑨ 나는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못 말한 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한다. 5 – 4 – 3 – 2 – 1

한편 우리는 말을 할 때 의미를 전달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몸짓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언어활동을 생략한 채 몸짓으로만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몸짓언어는 문화권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몸짓, 얼굴 표정 등의 비언어적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해야 한다.

제3장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원리

1 '과제(의사소통 활동, task)'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즉 과제 수행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과제 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의 중심이 과제 수행에 놓여야 하며,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히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실제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해외동포 아동들이 실생활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는 가정에서의 의사소통 활동, 한글학교를 포함한 한국인 공동체에서의 의사소통 활동, 한국 내 친척과의 대면 혹은 통신을 이용한 의사소통 활동 등이 있다.

실제적 과제의 수행은 의미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적응력과 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 과제만이 교실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실생활에서의 수행 가능성은 낮아도 한국어 사용 능력을 길러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제적 과제의 수행 능력을 내재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적 과제도 적절히 교실 활동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POINT

■ 과제(의사소통 활동, task)

'의미를 중심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이해, 처리, 생산, 대응 활동(Nunan, 1991)'을 말한다. '자기소개하기, 음식 주문하기, 이메일 쓰기, 일기예보 듣기, 신문기사 읽기' 등이 모두 과제의 예이다. 과제는 학습자로 하여금 유의미적이고 유목적적인 활동을 교실 안에서 하게 함으로써 교실에서의 언어 학습 활동을 실세계에서의 언어활동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POINT

■ 과제의 종류

① 실제적 과제(real-world task)
실생활에서 자주 수행되는 의사소통 활동을 교실 활동으로 도입한 것.
예) 인사하기, 자기소개하기

② 교육적 과제(pedagogic task)
실생활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교육적인 목적에서 교실 활동으로 도입한 과제.
예) 일기 쓰기, 친구들 앞에서 가족 소개하기

2 형태 학습에 기반해 과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과제 혹은 의사소통 활동이 중시되면서 문법 설명이나 연습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 문법이나 구조 등에 대한 교육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과제만을 중시하는 교육은 언어 형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언어 수행 차원의 교육만 강조하므로 언어 사용의 정확성을 기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므로 문법에 대한 이해와 연습에 근거하지 않고 의사소통만을 중시하게 되면 정확성을 기르기가 어렵다.

첫째, 한국어는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 형태가 발달한 언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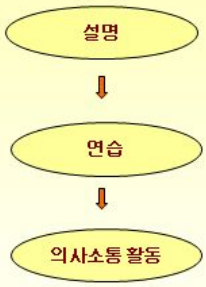
둘째, 한국어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문법이나 표현이 매우 다양한 언어다. 예를 들면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나 이에 상당하는 표현을 보면 '-어서, -니까, -기 때문에, -느라고, -는 바람에, -는 통에, -기에, -길래, -므로' 등 다양하나 그 의미와 용법에는 차이가 있다.

셋째, 한국어에는 이형태가 많다. 관형사형 어미를 예로 들면, 현재시제의 경우는 품사에 따라 '공부하는, 예쁜, 좋은'과 같이 '-는, -ㄴ, -은'이, 과거시제의 경우는 '공부한, 읽은, 좋던'과 같이 '-ㄴ, -은, -던'이 사용된다. 또한 현재시제의 경우 형용사에는 '-ㄴ, -은'이 사용되나 '있다, 없다'가 붙는 형용사의 경우는 동사처럼 '-는(재미있는, 맛없는)'을 사용하는 등, 이형태와 관련해 알아야 할 규칙이 많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와 구조가 다른 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법적 지식이나 훈련 없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는 초등학생 이상의 한글학교 아동들에게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인지가 발달한 아동의 경우는 규칙을 익혀 더 많은 표현을 생성해 내기를 원하므로 문법 교육은 매우 필요하며 중요하다.

또한 초급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한국어를 익히지 않으면 중급 이상의 단계로 발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초급 단계에서부터 문법 규칙을 이해하고 이를 학습자의 것으로 내재화시킬 수 있도록 설명과 연습의 단계를 거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익힌 문법 규칙을 언어의 실제 의사소통으로 전이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림 2〉 한국어 교육의 구조



●● 교수 *Tip*

문법 교육의 방법

아동들에게 문법을 문법 용어를 써 가며 딱딱하게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급적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장 만들기나 대화 만들기 연습 등을 통해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 조사 '-에서'를 교육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그림을 이용하여 '-에서'가 들어간 문장을 제시한 후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한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낼 때 '-에서'를 사용함을 익히게 된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요.

_____

3 과정 중심으로 교육한다.

한국어 교육이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활동이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의사소통 활동이 '준비 단계 → 활동 단계 → 확장 및 강화 단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라'거나 '쓰라',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라'는 방식의, 과정이 결여된 활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껏 배워 알고 있는 한국어 지식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해야 하는 말이나 글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바탕 위에서 학습자들이 창조적으로 의사소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준비 단계는 학습자가 말하거나 듣거나 읽거나 쓸 준비를 하도록 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한국어 능력과 배경 지식, 경험 등을 활용해 말하거나 듣거나 읽거나 쓸 내용을 준비한다.

활동 단계는 앞 단계에서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거나 듣거나 읽거나 쓰는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 단계이다. 과거에는 의사소통 활동을 할 때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내용을 풍부하게 표현하거나 신속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교사는 학습자들이 정확하고 유창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확장 및 강화 단계는 앞 단계에서 수행한 내용을 정리하고 다른 언어 기술로 연계시켜 의사소통하게 하거나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하게 하는 단계이다. 활동 단계에서 신문 기사를 읽었다면 확장 및 강화 단계에서는 같은 내용의 텔레비전 뉴스를 이해하는 활동을 하고 관련 어휘 확장 학습을 할 수도 있다. 말하기 활동의 경우는 활동 단계에서 대화를 나누는 활동을 했다면 확장 및 강화 단계에서는 같은 내용을 발표의 형식으로 진술하는 활동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예 6 과정 중심의 말하기 활동 사례(초급)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준비 단계

지난 주말에 어디에 갔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했어요? 아래 표에 메모해 보세요.

장소	한 일

활동 단계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옆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확장 및 강화단계

지난 주말에 한 일을 발표해 보세요.

예 7 과정 중심의 말하기 활동 사례(고급)

최근 들어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인권 단체나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습니다. 공공의 선을 위하여 사형 제도는 존속되어야 할까요, 폐지되어야 할까요? 함께 의견을 나눠 봅시다.

준비 단계

1. 사형 제도를 존속시키거나 폐지시키자는 주장에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 찾아봅시다.

○ 사형 제도를 존속시키자는 근거

-
-
-

○ 사형 제도를 폐지시키자는 근거

-
-
-

2.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한 후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의 토론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를 준비하십시오.

활동 단계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견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고 자신의 논리를 충분히 설명하여 상대방을 설득해 보십시오. 토론할 때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토론의 격식을 지키기 바랍니다.

- 그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 저는 -는 이유에서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확장 및 강화단계

여러분은 사형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써 보십시오.

4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술을 통합해 교육한다.

언어의 생산과 수용은 분리할 수 없으며, 구어와 문어의 상관성도 이들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실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듣기-말하기, 읽기-쓰기, 읽기-말하기, 듣기-쓰기-말하기' 등과 같이, 보통 둘 이상의 언어 기술을 연계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즉, 말하기 활동을 할 때 단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데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한 내용을 글로 써 보게 한다거나 이야기하기 전에 관련된 자료를 읽는 등의 활동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별 연계 활동은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의 기술 훈련을 통해 습득한 의사소통 능력이 다른 기술과의 통합 활동을 통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동은 성장하면서 좀 더 현재의 의사소통 맥락에서 벗어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사고를 조직하는 도구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배운다. 그런데 해외동포 아동의 경우는 한국어 습득과 사용 환경이 가정 등에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구사력이 있는 정도이다. 가정이나 일상적인 맥락을 벗어나 의사소통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진술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휘력이나 격식의 사용에 익숙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맥락에서 벗어난 언어, 즉 의미 전달이 상황 정보보다는 언어 정보에 의존하는 언어는 문어 텍스트에서 최대로 실현된다. 따라서 글의 이해 능력은 개인의 지각과 인지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효율적인 도구이며, 모든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조건이 된다. 즉, 아동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면서 언어의 사회적 표상을 발달시키게 되며, 의사소통 능력의 범위를 자신이 놓여 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인지적인 것으로 옮겨 가게 된다. 따라서 말하기나 듣기 활동에 읽기 활동을 연계시켜 맥락을 벗어난 한국어 이해 능력을 기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한다.

재외동포 아동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나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방식보다는 아동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자극을 주어, 스스로 한민족의 일원임을 느끼고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필요한 한국 문화 교육 내용은 무엇일까? <한국어 1>(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나오는 다음의 요소들은 바람직한 문화 교육 내용일까?

○ 태극기 그리기, 태극기 노래 부르기(쉬어가기 1)
○ 무궁화 그리기, 무궁화 노래 부르기(쉬어가기 2)
○ 윷놀이하기(쉬어가기 3)
○ 한국의 전통음식 알아보기(쉬어가기 4)

<한국어 1>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 문화 교육 내용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항목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한국인의 전통을 알려 주고자 하는 의도는 좋을 수 있으나,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나 무궁화를 알려 줌으로써 아동들에게 한국의 무엇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외동포 아동들에게 국가, 혹은 국민의 인식을 심어 주려고 하는 교육 내용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 문화부터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문화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설명이나 전달보다는 아동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려 주고자 할 때 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명한 후 태극기를 그리거나 무궁화 노래를 부르게 하기보다는 아동들이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 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해 보게 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일 아동들에게서 태극기, 무궁화, 김치, 태권도, 서울, 할아버지·할머니 등의 말들이 나오면, 교사는 이들을 종합해 '한국의 국기는 태극기이고, 한국의 꽃은 무궁화예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즐겨 먹는데, 여러분도 김치를 좋아해요?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술이에요. 올림픽에서도 태권도를 하지요. 누가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인데, 아주 큰 도시예요. 서울에 가 본 사람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 할아버지·할머니가 사시는 나라예요.'라고 제시해 아동들이 한국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될 것이다.

또한 한국 문화를 교육할 때는 한국 문화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거주국의 문화나 다양한 문화와 비교해 제시하여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게 함으로써, 문화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POINT

■ **한국 문화 교육의 중요성**

재미동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글학교에서 배운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부채춤, 태권도, 제기 차기, 팽이치기, 큰절 배우기, 윷놀이, 한복 입기, 서예, 한국음식 만들어 먹기 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 경험은 대학에 진학한 이후 자아정체성 위기를 겪을 때 정체성을 회복하거나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즉,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적 노출의 효과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동포 아동들이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6 아동들의 맞춤법 교정을 위해서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해외동포 아동들 중에는 가정에서 구어 중심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맞춤법에 맞춰 정확히 글을 쓰는 훈련을 받지 않은 학습자가 많아 글을 쓸 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다. 재외동포 아동들에게 쓰기는 말하기나 듣기에 비해 덜 중요한 언어 기술이기는 하나, 한국어 능력을 중급이나 고급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쓸 줄 아는 능력도 갖추게 해야 한다.

아동들이 한국어 맞춤법 규정에 맞춰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한국어 어휘의 맞춤법에 대해서도 교육해야 하지만, 보다 생산성이 있는 문법 형태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용빈도가 어미나 조사 중 높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것(-어요, -었어요, -어서, -으러, -으면서, 이, 을, 에, 에서 등)의 형태를 인식시켜 정확하게 쓰게 하면, 오류의 양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한편 맞춤법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잘못 쓴 것을 사후에 고쳐 주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으나, 맞춤법 학습을 단원의 주요 교육 목표로 설정하여, 학습 과정 속에서 스스로 발견학습을 통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아래에 제시하는 절차와 같이 학습자 스스로 표기법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된 표기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 맞춤법 교육의 절차

예 8 재외동포 아동의 철자 오류 수정 교육 사례

교육 목표: '-아요, -어요, -여요' 바로 쓰기

1) 다음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민수 학생이 쓴 글이에요. 민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잘 읽어 보세요.

나는 매일 학교에 가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아요.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요. 먼저 밥을 먹어요. 그리고 조금 쉬어요. 저녁을 먹기 전에 숙제를 하고 책을 읽어요. 저녁에는 아빠하고 운동을 해요.

2) 문장의 끝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나는 매일 학교에 가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아요.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요. 먼저 밥을 먹어요. 그리고 조금 쉬어요. 저녁을 먹기 전에 숙제를 하고 책을 읽어요. 저녁에는 아빠하고 운동을 해요.

교수 Tip

학생들에게 공통점을 찾아보게 하면 '요' 가 있다고 말한다. '요' 앞의 글자까지 함께 말해 보게 하면 학생들은 '가요, 해요, 아요, 어요' 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교사는 '가요' 는 '가아요' 가 줄어서 된 말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어 현재 종결형은 모두 '–아요, –어요, 해요' 로만 끝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머거요]라고 발음될 경우 '머거요' 로 써서는 안 되고 종결형은 '어요' 로 쓰고 [거]의 첫소리 'ㄱ'은 앞 음절의 받침으로 보내 '먹어요' 라고 써야 한다고 설명한다.

3)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맞춤법에 맞게 써 보세요.

_____ _____ _____

4)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아요, -어요, 해요'를 정확하게 사용해서 써 보세요.

6 아동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개발해 사용한다.

아동들은 오랜 시간 집중하기 어렵고, 조용히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는 활동적인 학습을 선호한다. 따라서 수업 활동으로 아동들이 즐겁게 참여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1) 움직이며 배우기

아동들에게 목표 문법이 들어 있는 문장을 명령문 형태로 제공한 후, 아동들이 그 내용에 반응하도록 한다.

예 9

'-(으)세요'의 경우: 먼저 교사가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책을 읽으세요, 노래를 하세요, 인사를 하세요' 등의 문장을 말하고 아동들이 명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다. 그 다음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으)세요'를 이용해 명령하면, 친구들이 그 말에 반응하도록 한다.

예 10

위치 표현 '앞/뒤/옆/위/아래/오른쪽/왼쪽에 있어요'의 경우: 교사와 친구들이 말하는 문장을 학습자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먼저 교사가 종이위의 어떤 지점에 산을 그려 학생들에게 보여 주며 같은 위치에 산을 그리도록 한다. 그 다음 교사는 '산 아래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 옆에 큰 나무가 둘 있어요.'와 같은 문장을 말해 학생들이 지시에 따라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계속해서 교사가 지시를 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지시하게 할 수도 있다.

예 11

관형사형 어미 '-는, -ㄴ, -은' 의 경우: 〈예 9〉와 같은 방법으로 교사가 말하는 명령문에 반응하게 한 후, 명령문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말해 보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앞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하세요. 머리가 긴 친구에게 연필을 주세요. 빨간 옷을 입은 친구와 함께 노래를 하세요." 등과 같은 예문을 사용할 수 있다.

2) 게임하기

① 숫자 맞추기 게임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후 이 숫자를 빨리 외울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게임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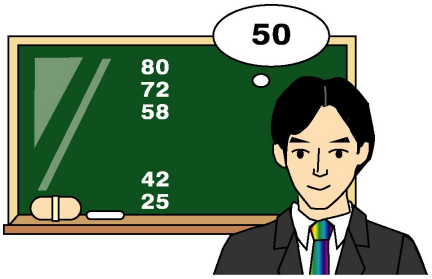
㉠ 교사가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머릿속으로 생각한 후 학생들에게 숫자를 정했다고 알린다.

㉡ 첫 번째 학생에게 1부터 100 사이의 숫자 중 하나를 말하도록 시킨다. 학생이 숫자를 말하면 교사는 자신이 생각한 숫자가 학생이 말한 숫자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위, 아래'라는 어휘를 사용해 말해 준다. 예를 들어 교사가 5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학생이 80이라고 말하면 교사는 칠판의 윗부분에 80이라는 숫자를 쓰고 '아래'라고 말해 자신이 생각한 숫자가 80보다 아래에 있음을 알린다.

㉢ ㉡에서 예로 든 바와 같이 게임이 진행되면 두 번째 학생은 1부터 79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말해야 한다. 만일 두 번째 학생이 25라는 숫자를 말한다면 교사는 칠판의 아랫부분에 25라는 숫자를 쓰고 '위'라고 말해 자신이 생각한 숫자가 25와 80 사이에 있는 숫자임을 알린다.

㉣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다 어느 학생인가가 교사가 생각한 숫자를 맞추게 되면 게임이 끝난다.

㉤ 그러면 교사는 숫자를 맞춘 학생을 앞으로 불러내어 그 학생에게 지금까지 교사가 했던 역할을 맡아 게임을 진행하게 한다. 그 학생은 친구들이 말하는 숫자를 듣고 바로 '위, 아래'라는 반응을 해 줘야 하므로 숫자를 외우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많은 학생이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순간 학생들의 긴장도가 매우 높아져 숫자 암기에 집중하게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숫자를 외우는 효과를 보게 된다.



② 단어 분류하기 게임

교육한 여러 부류의 어휘 카드를 섞어 놓고 이들을 공통점이 있는 것끼리 분류하게 하는 방법이다. 개인별로 하게 하는 것보다 2~3인이 협력하여 서로 협력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예 12〉 단어 분류하기 게임에 사용될 단어의 예

사과	호랑이	형	셋	병원	귀	포도
가방	개	아빠	배	다리	언니	책
하나	집	팔	열	학교	엄마	연필
도서관	고양이	사전	귤	어깨	사자	다섯

③ 단어 맞추기 게임

한 사람이 주어진 카드를 보며 제시된 어휘를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면(선생님: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학교에 있어요.) 같은 팀의 다른 사람이 맞추는 게임이다.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단어를 맞춘 팀이 승리한다. 이 게임은 배운 어휘를 복습할 때 유용하며, 의사소통 전략인 돌려 말하기 능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준다.

〈예 13〉 단어 맞추기 게임에 사용될 단어의 예

A팀:	선생님	병원	선물을 주다	한국	호랑이	토요일	맛있다
B팀:	엄마	공원	감기에 걸리다	서울	고양이	설날	따뜻하다
C팀:	친구	도서관	안경을 쓰다	제주도	닭	생일	건강하다

④ 주사위 던져 문제 풀기 게임

복습을 지루하게 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반의 학생을 두세 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예 14>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필요한 만큼의 칸을 만든 후 매 칸에 그동안 배운 주요 내용을 문장의 형식으로 적어 놓는다. 이때 문장은 주로 의문문의 형식을 띄지만 명령문이나 평서문, 청유문일 수도 있다.

㉡ 각 팀의 학생들은 차례로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앞으로 진행하여, 그 칸에 들어 있는 문장을 읽은 후 그 문장에 대한 대답·반응을 하거나 문장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만일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원래의 칸으로 되돌아가 머물러야 한다.

㉢ 마지막 칸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팀이 승리하는 것이다.

〈예 14〉 주사위 던져 문제 풀기 게임의 예

●● 교수 *Tip*

주사위 던져 문제 풀기 게임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 복습이 목적이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칸을 가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주사위의 4,5,6을 1,2,3으로 바꾸어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게임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주거나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미끄럼틀을 만들 수도 있다.

⑤ 이야기 완성하기 게임

사건의 선후 관계나 논리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글을 몇 조각으로 나누어 학생들에게 나눠 준 후, 이야기를 순서에 맞게 먼저 조합하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다. 읽은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바꿔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거나 이야기를 시간적·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 활동이다. 팀원의 숫자에 따라 이야기 조각의 수를 정할 수도 있고, 이야기 조각의 수에 따라 팀원의 수를 정할 수도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이야기가 쓰여 있는 글을 팀원의 숫자에 맞게 나눈 후 학생들에게 한 조각씩 나누어 준다.

㉡ 학생들에게 자신이 받은 이야기를 잘 읽게 한 후, 읽은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게 한다. 이때 학생들은 읽은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말할 필요가 없고, 읽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 학생들은 팀원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혹은 들어 가면서) 이야기를 순서에 맞게 재구성한다.

•• 교수 *Tip*

이야기 조각을 학생들에게 나눠 줄 때 한국어 능력이 좋은 학생에게는 길이가 길거나 어려운 표현이 많이 들어 있는 조각을 나눠 주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길이가 짧거나 쉬운 표현이 들어 있는 이야기 조각을 나눠 주는 것이 좋다.

3) 노래 부르기

노래를 통해 어휘나 문법, 한국적 정서 등을 익히게 할 수도 있다.

예 14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귀

교수 Tip

율동을 하며 노래를 부르면 신체어 어휘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유치반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노래다.

예 15 '산바람 강바람' 노래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 준대요

교수 Tip

'바람' 을 꾸며 주는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 노래다. 따라서 관형사형을 교육한 후 가르쳐 주면 좋은 노래다.

예 16 '열 꼬마 인디언' 의 개사곡

강아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강아지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강아지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귀여운 강아지 열 마리

장미꽃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장미꽃 네 송이 다섯 송이 여섯 송이
장미꽃 일곱 송이 여덟 송이 아홉 송이
예쁜 장미꽃 열 송이

교수 Tip

사물의 수를 세는 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노래다. 이 외에도 '비빔밥 한 그릇……', '친구 한 명……' 등과 같이 노래를 만들어 부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정숙. 1998. “과제수행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방법론.” 한국어 교육 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정숙. 2008.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초급 1단계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37호. 이중언어학회.

김호정. 2007. “재외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 연구 방향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 교육 제 18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73～100.

박갑수. 2006.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오늘과 내일.” 이중언어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이중언어학회. pp. 18～31.

옥선화、백희영. 1999. 재미동포 가족의 자녀교육 및 가족생활 실태조사-로스엔젤레스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재외동포재단 연구 보고서.

원진숙、박나리. 2002. “영어권 교포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이중언어학 제20호. 이중언어학회. pp. 193～212.

Celce-Murcia, M.(ed.). 199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Heinle & Heinle Publishers.

Doughty, C., & Williams, J.(eds.). 1998.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Ellis, R. 2003.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Graham Crookes and Susan M. Gass eds.(1993), *Tasks and Language Learning,* Multilingual Matters.

Larsen-Freeman, D.(1991), "Teaching Grammar,"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Heinle & Heinle Publishers.

Omaggio, A. H. 2001. *Teaching Language in Context.(3rd ed.)* Heinle & Heinle Publisher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제교육진흥원. 2001. 한국어 1,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제교육진흥원. 2002. 한국어 3,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제교육진흥원. 2003. 한국어 5, 6.